

## 부여 장석 광상의 기원

이한영\*,

한국지질자원연구원, 지질기반정보연구부(Hanlee@kigam.re.kr)

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일대의 구릉지 능선에 발달한 부여광상은 해발고도 30m부터 정상 부 178m 까지 산전체가 광화대이며 동서연장 1,370m, 남북연장 750m의 타원형태로 분포하며 예상매장량은 약 6500만톤(M/T)이다.

장석광체의 광물조성은 정장석, 미사장석, 사장석, 석영이 주광물이며 부광물들로서는 석류석, 백운모, 저어콘이 나타난다.

기존연구에서 김용석과 지정만(1994)은 흑운모화강암의 후기 분화상인 우백질 화강암체가 장석광체이며 중세립의 석류석, 알바이트는 변성작용과 열수변질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.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변암과의 선후관계, 암석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징을 고려한 바 장석광체의 모암은 우백질 화강편마암이며 주변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으로 인한 열수용액의 알카리 교대작용으로 순수 알바이트 및 정장석의 장석농집대인 광체가 형성되었으며 석류석의 성분은 알만딘(0.67-0.45)과 스페스틴(0.28-0.53)의 함량이 높다.